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인과적 관계

금지현*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성숙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부모애착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의 3차년도 자료 중에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초등학교 6학년 2,573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은 진로성숙도이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와 학생 간의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진로성숙도를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며, 초등학생과 부모의 원만한 애착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모두의 깊은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신저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02-3460-0114, keumjh99@kedi.re.kr

I. 서론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 창의인성교육,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Wee클래스, 다문화교육, 방송통신중학교 등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학력 중심의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교육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해영, 류방란, 김경애, 김경희, 김민희, 2011). 이러한 노력들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 탈락하거나 혹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학교폭력과 중도탈락, 자살 등의 원인으로 학력 지상주의, 획일적인 교육방식, 보충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컴퓨터게임과 같은 여러 원인들이 밝혀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수립되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되는 것이 가정의 해체인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학생들이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애착관계가 형성될 때 학생이 긍정적으로 발달함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일부 도시 빈민가나 농어촌 지역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의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러한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들의 근무 기피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승진간산점을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원인으로서는 명확한 꿈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은 나쁜 길로 빠져들기 쉽지 않은데 이런 확고한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 자아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진로성숙도라 한다(남궁정, 2004).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활동'이 추가되었고, 중·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계는 중학교이다. 이러한 조짐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학생들의 성장속도도 빨라지고 학교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학생을 지도하는데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사에 대한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특히 6학년은 초등학교 최고 학년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사춘기에 속한다. 성폭행/성추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초등학교 교사들이 담임으로 가장 비선호하는 학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2012학년도부터 6학년 담임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복수담임을 활용하여 6학년 담임을 지원하는 등 발달단계상 많은 관심이 필요한 단계이다(윤영근, 2010; 대구광역시교육청, 201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박은영, 2011; 소연희, 2011; 이은정, 장윤옥, 2008; 채진영, 2010; 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은 연구에 따라 인과관계의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박은영, 2011; 소연희, 2011).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의 가족 관련 변인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진로성숙도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연구에 따라 다른 인과관계를 재확인하고 부모 관련 변인들과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성숙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부모애착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가?
- 연구문제2.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애착, 진로성숙도 및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3.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애착은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4.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5.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6.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애착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7.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애착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문헌고찰

1. 학교생활적응과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1)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애착의 관계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곽수란, 2006).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일부 선호하는 학군을 해체하거나 늘리는 방법이다.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교가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대체로 좋은 학군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발전된 지역을 의미한다.

빈곤가정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편모, 실직, 우울증,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과 같은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가 많다. 그러한 이유로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Brooks-Gunn, Klebanov & Liaw, 199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의 학교를 학생들이 선호하고,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부모의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며(박은영, 2011)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특정 교과와 학업성취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지현, 이용환, 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애착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박은영, 2011; 소연희, 2011; 채진영, 2010),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고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의 지지나 애착이 강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경험적

으로 알 수 있다. 아동의 학교부적응의 한 원인으로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을 들 수 있으며 초등학생에게 부모애착이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유병선, 이지연, 이채희, 2008).

2)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학교 졸업 이후에 갖게 될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직접 느끼고 이해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진로교육의 목표는 기초적인 자아의 이해, 다양한 직업 역할 인식, 일과 직업에 대한 존경심 갖기, 사회적 행동 습득 등으로 이루어진다(정철영, 2011). 이러한 진로교육은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위 내용들은 결국 사회 구성원 그리고 그 이전 단계인 학교에서의 적응을 돕고,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는 Super와 Crites에 의해 발달되었던 개념으로(Crites, 1961, 1965; Super, 1955) 진로성숙, 직업성숙도, 진로태도성숙도, 진로인식 등과 혼용해 사용되기도 한다. 진로성숙도는 자아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며 개인이 같은 연령대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 내에서 발달과업 수행정도에 따라 차지하게 되는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남궁정, 2004).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태도와 능력으로 구분하며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기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능력을 가지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여 진로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실행한다고 하였다(김강호, 2009). 성장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어느 정도 비례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보다 6학년이 그리고 중학생이 직업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alls, 2000). 우리나라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도입, 교육과정내 진로활동 구성 등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로성숙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박은영, 2011). 이와는 반대로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도 있는데(소연희, 2011)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진로성숙도도 높게 나타나는 점과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인과관계가 다르게 설정되기도 하였다.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로교육을 통한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의 상승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진로성숙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애착의 관계

1) 진로성숙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

진로성숙도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교, 가정, 사회, 개인과 관련한 변인들을 구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단계는 특히 가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부모의 학력 및 직업, 가정의 소득수준, 모의 취업여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지지, 가족체계, 가정의 가치지향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부모애착과 같은 가족관련 변인들 중에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이은정, 장윤옥, 2008; Hartung et al., 2005).

어느 정도 비슷한 직업이나 경제력을 가진 부모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고 이들의 자녀가 가까운 지역의 초등학교를 다님으로써 한 학교의 초등학생들은 유사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라 부르는데, 동일한 사회계층의 구성원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성 때문에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이승국, 2000).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나의 변인으로 측정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직업, 소득, 교육수준과 같이 세분화하여 각각 별도의 변인으로 측정되기도 하는데 측정방법과 대상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부모의 직업만족도와 직업이해도, 거주환경의 수준이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박영숙, 김종우, 이상원, 2010), 부모와의 관계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채진영, 201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영역 중 확신성에만 영향을 미치거나(이은정, 장윤옥, 2008)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월수입을 각각의 변인으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의 경우 부의 교육수준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연, 강경찬, 1995). 중·고등학생은 부모보다 또래집단의 문화가 더 강하고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진로성숙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는 반대로 초등학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으로나 부모의 관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임을 확인하였다.

2) 진로성숙도와 부모애착의 관계

아동이 부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진로성숙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감독, 대화 등이 중요하다(구승신, 박성현, 200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를 매개로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와 같이 부모와의 관계 또한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부모와의 관계는 양육 태도, 애착, 대화, 감독, 통제, 지지 등 각각의 개념들이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며 사용되기도 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며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중 애착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로 형성된 지속적인 애정의 유대로 영유아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다(장영은, 2010).

부모애착과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장영은, 2010) 부모애착을 포함한 부모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채진영, 2010).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게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진현정, 2011) 남자보다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영, 1999).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부모가 큰 역할을 하며(Keller & Whiston, 2008)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적응 행동을 많이 보이고, 사회활동을 폭넓게 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이 증진되며 진로발달이 강화되었다(Blus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Rainey & Borders, 1997).

3.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 설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박은영, 2011),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유병선 외, 2008),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박은영, 2011)에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박은영, 2011; 소연희, 2011; 채진영, 2010)와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유병선 외, 2008)를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애착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김대연, 강경찬, 1995),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박은영, 2011)를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넷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애착을 포함한 부모와의 관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채진영, 2010),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장영은, 2010),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구승신, 박성현, 2007; 이희영, 1999; Blusein et al., 1995; Keller & Whiston, 2008)를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애착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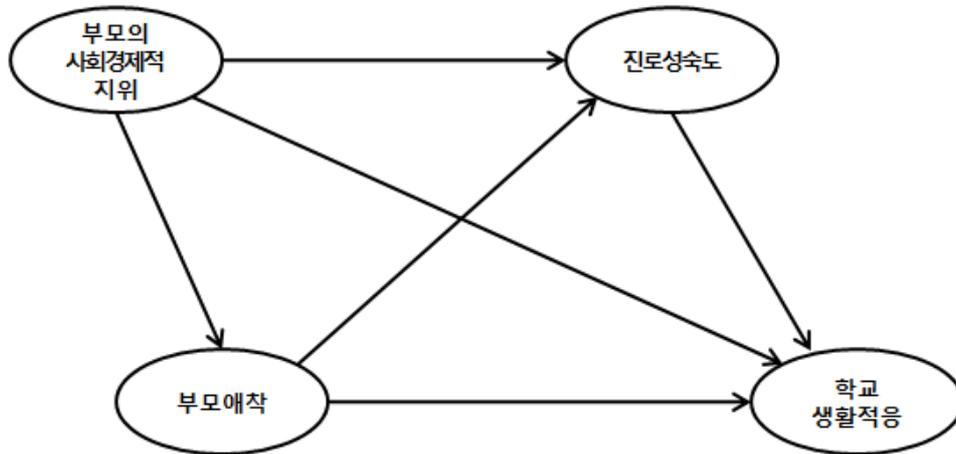


그림 1.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종단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Korea Youth Panel Survey)를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KYPS는 전국의 초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의 방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2,844명을 2004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되는 2008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6학년에 해당하는 3차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측정 문항 중 결측치가 2개 이상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71명의 자료를 제외한 2,57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KYPS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학력

과 소득 문항의 응답은 범위를 재구성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의 학력, 모의 학력, 소득의 3개의 측정변인을 사용하였으며 학력은 '1(=무학)에서 8(=대학원 박사)'로 구성되고, 소득은 '1(=100만원 미만)에서 6(=500만원 초과)'으로 수정하였다. 부모애착은 6문항, 진로성숙도는 7문항을 총합하여 한 측정변인으로, 학교생활적응은 학업흥미, 외로움, 친구관계의 3개의 측정변인을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진로성숙도, 친구관계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채진영, 2010), 진로성숙도(박은영, 2011; 채진영, 2010), 부모애착(박은영, 2011)의 변인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에 활용되어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학교생활적응은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과정을 거쳐 3개의 측정변인을 선택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 및 신뢰도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내용 및 신뢰도

변 인	내 용	신뢰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1. 부의 학력 2. 모의 학력 3. 소득	Crobach $\alpha = .718$
부모애착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Crobach $\alpha = .860$
진로성숙도	1.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2. 나는 아직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3. 나는 현재, 직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직업이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Crobach $\alpha = .717$

변 인	내 용	신뢰도
	4.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5. 나는 현재, 장래 직업선택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6.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7. 나는 현재, 나의 장래 직업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 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학교생활적응	1. 나는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2.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3.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Crobach $\alpha = .608$

*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

결측치는 평균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PASW 18.0을 활용한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7.0을 활용하여 변인 간 경로분석과 모형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 기준은 χ^2 의 p값과 함께 CFI, GFI, AGFI, NFI, RMSEA를 활용하며 판단 기준은 CFI > .95, GFI > .95, AGFI > .95, NFI > .90, RMSEA < .05이다(Bentler & Bonett, 1980; Hu & Bentler, 1999).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정규성 분석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 및 학교생활적응 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과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측

정변인의 정규성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왜도 값과 첨도 값이 2를 넘는 측정변인은 없어 일변량 정규성은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정규성은 다변량 첨도지수가 7.668로 유의도 5% 수준에서의 기각률 5.99보다 큰 15.374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정규자료를 처리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고(Nevitt & Hancock, 2001) 이 방법은 입력자료로 원자료를 활용한다(배병렬, 2009).

표 2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및 정규성 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	왜도		첨도	
						지수	t	지수	t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의 학력	4.89	1.17	1	8	1~8	0.178	3.679	-0.533	-5.519
모의 학력	4.47	.989	1	8	1~8	0.598	12.374	0.224	2.319
소득	3.35	1.287	1	6	1~6	0.34	7.033	-0.488	-5.058
부모애착									
부모애착	22.02	4.65	6	30	6~30	-0.218	-4.513	-0.142	-1.47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26.47	4.65	7	35	7~35	-0.166	-3.43	-0.426	-4.412
학교생활적응									
학업흥미	3.79	.93	1	5	1~5	-0.532	-11.009	0.046	0.472
외로움	3.99	1.03	1	5	1~5	-0.793	-16.416	-0.083	-0.857
친구관계	3.97	.95	1	5	1~5	-0.658	-13.629	0.056	0.575
다변량정규성								7.668	15.374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모든 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 관계였고, 그다음으로 외로움과 친구관계였다.

표 3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1. 부의 학력	-							
2. 모의 학력	0.67**	-						
3. 소득	0.39**	0.38**	-					
4. 부모애착	0.07**	0.06**	0.05**	-				
5. 진로성숙도	0.12**	0.12**	0.08**	0.20**	-			
6. 학업흥미	0.10**	0.10**	0.10**	0.29**	0.25**	-		
7. 외로움	0.06**	0.09**	0.06**	0.23**	0.18**	0.35**	-	
8. 친구관계	0.09**	0.08**	0.10**	0.16**	0.25**	0.24**	0.43**	-

**p<0.01

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및 진로성숙도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이 실증적 자료 예측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합지수 중 χ^2 값은 687.208(p=0.000)로 나타났다. χ^2 값은 표본의 크기(200개 이상)와 다변량 정규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변인이 많을 때 모형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평가지수가 되지 못한다(Bentler & Bonett, 1980). 따라서 χ^2 값은 적합도로 판단하지 않았고, GFI는 .985, AGFI는 .967, NFI는 .957, CFI는 .961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는 .058로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타나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적 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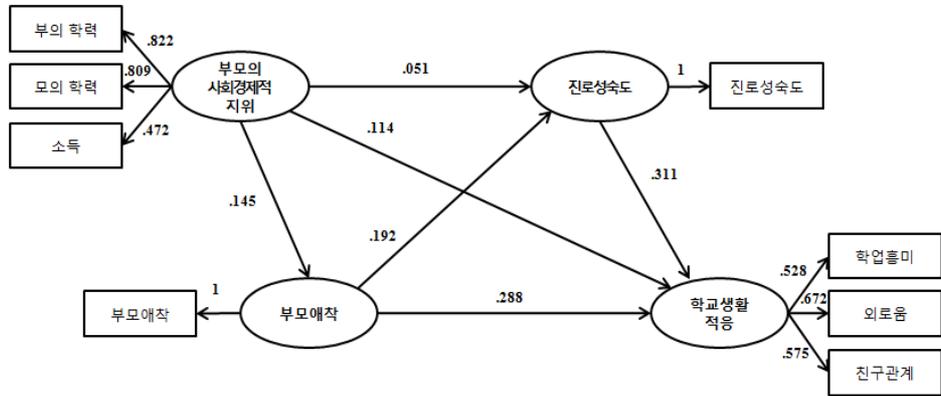


그림 2. 가설적 모형 검증 결과

$\chi^2=154.767(p=.000, df=16)$, GFI=.985, AGFI=.967, NFI=.957, CFI=.961, RMSEA=.058

3. 변인 간 영향 관계 분석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및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정적인 직접적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의 경로계수의 표준화 경로계수(β)와 t값을 산출하였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로계수(β)는 .114($t=4.306$), 부모애착의 경로계수(β)는 .288($t=11.012$), 진로성숙도의 경로계수(β)는 .311($t=11.77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경로계수는 다른 변인의 경로계수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진로성숙도는 변인들 중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부모애착의 경로계수(β)는 .192($t=9.81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로계수(β)는 .051($t=2.32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4
변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직접효과 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β)	표준 오차	t	p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부모애착	.145	.172	6.446	.00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진로성숙도	.051	.167	2.324	.02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학교생활적응	.114	.022	4.306	.000
부모애착 → 진로성숙도	.192	.020	9.814	.000
부모애착 → 학교생활적응	.288	.003	11.012	.000
진로성숙도 → 학교생활적응	.311	.003	11.779	.000

경로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변인들에 대하여 해당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여 판단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는 부모애착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고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이 매개효과를 보였다. 가설정 모형의 각 변인 간의 매개위치에 있는 변인들의 직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매개위치에 있는 변인들의 간접효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5
변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

경로유형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독립-매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부모애착		.145**
→ 부모애착	매개-종속	부모애착 → 학교생활적응		.288**
→ 학교생활적응	독립-종속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학교생활적응		.11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독립-매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진로성숙도		.051*
→ 진로성숙도	매개-종속	진로성숙도 → 학교생활적응		.311**
→ 학교생활적응	독립-종속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학교생활적응		.114**
부모애착	독립-매개	부모애착 → 진로성숙도		.192**
→ 진로성숙도	매개-종속	진로성숙도 → 학교생활적응		.311**
→ 학교생활적응	독립-종속	부모애착 → 학교생활적응		.28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독립-매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부모애착		.145**
→ 부모애착	매개-종속	부모애착 → 진로성숙도		.192**
→ 진로성숙도	독립-종속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진로성숙도		.051*

*p<0.05, **p<0.01

V. 논의 및 결론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인과적 모형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은 진로성숙도였다.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소연희, 2011)와 인과관계가 반대인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박은영, 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모든 것이 학력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취도가 뛰어나지 못하면 부적응 학생으로 낙인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뚜렷한 목적의식 없는 학생들이 겪는 탈선과 우울증, 그리고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로성숙도를 키울 수 있는 진로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6학년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효과적이고 현재의 정책방향이 옳음을 이 연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학생이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관점보다 진로성숙도를 높여 학생의 학교생활을 적응을 돕자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이는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초등학생들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초등학생의 학업, 학교생활적응, 진로성숙도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변인들 중 그 영향력이 가장 작은데 중학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이은정, 장윤옥, 2008) 초등학교 최고 학년인 6학년에서 비록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 영향이 제일 작음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와 학생 간의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함이 밝혀졌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 그 영향력이 감소하나 부모애착은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맞벌이, 늦은 퇴근, 초등학생은 학원, PC방 등의 늦은 귀가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 줄어든다. 초등학생의 진로성숙과 학교생활적응에는 부모의 물질적 풍요보다 부모와의 정서적인 애착관계가 더 중요하므로 학교부적응 문제가 가장 큰 중학교 입학 전 초등학생에게 부모의 깊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고 사회와 학교는 부모와 학생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패널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으나 패널데이터 및 질문지에서 제시되어 있는 문항들만을 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이 연구도 가지고 있다.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학교생활적응 관련 문항들은 신뢰도 및 요인분석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요인구조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로 인해 학업흥미, 외로움, 친구관계의 3문항으로 분석하여 학교생활적응이란 변인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진로성숙도 또

한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측정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타당도 높은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 결과들과 비교함에 있어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 및 지원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들의 현장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실과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일과 가족 관련 STEAM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STEAM 교육에서 진로 및 직업 탐색을 동기유발로 활용할 수 있다(금지현, 2012).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직업기초능력 등 역량기반교육에서의 진로개발능력과 진로교육을 교과 성격에 포함하고 있는 실과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진로성숙도를 발달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진로성숙도는 부모관련 변인보다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생활지도에 관심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6학년에게 진로성숙도를 발달시키기 위한 진로교육(체험, 상담, 진단 등)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며 이를 유지 및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모두의 깊은 관심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6학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있지만 약해지는 단계이고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인 진로성숙도에도 동일하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는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성이 중요하며 이는 진로성숙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과 부적응 문제가 큰 중학교와 중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6학년에게 특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교육과학기술부 (2011). **방송통신고 운영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 교육지원계획**.
- 구승신, 박성현 (2007). 초등학생의 직업성숙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15(1), 119-131.
- 금지현 (2012). 실과 가정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실과에 대한 태도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1), 61-71.
- 금지현, 이용환 (2008). 실과에서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1(2), 315-332.
- 김강호 (2009).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8(4), 183-200.
- 김대연, 강경찬 (1995). 고교생의 진로성숙·진로포부 결정요인 탐색. **교육연구논총**, 12, 5-42.
- 남궁정 (2004). 청소년을 위한 진로성숙도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7(2), 73-91.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2).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
- 박영숙, 김종우, 이상원 (2010).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20(2), 151-171.
- 박은영 (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http://www.law.go.kr>에서 2012년 3월 20일 인출.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소연희 (2011).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0(4), 203-220.
- 유병선, 이지연, 이채희 (2008). 초등학생의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6(3), 3-14.

- 윤영근 (2010).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경험하는 학급경영상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한 인식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국 (2000). **중등학생의 진로성숙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정, 장윤옥 (2008).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55-376.
- 이혜영, 류방란, 김경애, 김경희, 김민희 (2011).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영 (1999). 진로성숙의 예언변인으로서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의 유용성. **한국대학 상담학회지**, 10(2), 135-152.
- 장영은 (201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도에 애착과 자아개념이 미치는 효과: 성차,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에 관하여. **대한국정학회지**, 48(6), 71-82.
- 정철영 (2011).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과교육연구**, 17(4), 1-30.
- 진현정 (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채진영 (2010).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11-121.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16-432.
- Brooks-Gunn, J., Klebanov, P. K., & Liaw, F. (1995). The learning, physical and emotional environment of the home in the context of poverty: The 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251-271.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259.

- Crites, J. O. (1965).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in adolescence: Attitude test of vocational development inventory. *Psychological Monographs*, *79*(2), 1-34.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85-419.
- Hu, L. Y.,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 Nevitt, J., & Hancock, G. R. (2001). Performance of bootstrapping approaches to model test statistics and parameter standard error estima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353-377.
- Rainey, L. M., & Borders, L. D. (1997). Influential factors i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2), 160-172.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51-163.
- Walls, R. T. (2000). Vocational cognition: Accuracy of 3rd-, 6th-, 9th-, and 12th-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137-144.

ABSTRACT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career maturity,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s attach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um, Ji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career maturity,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s attach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SEM analysis was performed, utilizing data harvested from the KYPS in 2006.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career maturit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was a more important factor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than socio-economic status.

The findings of the study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career maturity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took part in this study had a significant effect upon school adjustment. Second, bo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need to develop quality relationships at school and at home to improve the level of students'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socio-economic status, parents attachment, career maturity

투고일 : 3월 6일, 심사일 : 6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27일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